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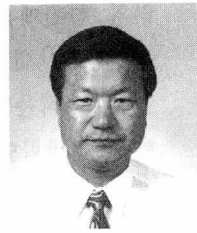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방향

-환경해설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

환경해설 프로그램의 시작

산과 나무를 연구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산을 오르는 일은 나의 일상생활이기도 하다. 심산, 야산, 도심지의 소공원까지 가릴 것 없이 산행을 하면서 동행하는 분들에게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대하여 이름에 관한 유래, 용도, 식별법 등을 설명 해주면 전혀 관심없이 산을 오르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 변의 나무, 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해오고 좀전에 가르쳐준 나무나 풀이 나오면 앞장서서 그 나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흐뭇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이 환경교육이고 자연교육, 더 나아가 환경해설이구나 하고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런차에 국립공원협회에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정릉의 수목코스, 구기동의 야생화코스, 북한산성



최 명 섭

〈임업연구원 · 농학박사〉

의 역사문화 코스등 3개 파트로 구분해서 환경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거기에 정릉골에서 하게되는 수목분야에 해설자로 활동 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일면 기쁘기도 하고, 일면은 두렵기조차 하였다.

수목해설 코스

4월의 두번째 일요일 정릉골짜기 매표소에서 150m위, 삼거리의 하천에는 아직 얼음이 얼어있고 산벚나무가 하얗게 핀 초봄, 아직은 옷깃을 여머야 할 만큼 찬바람이 불어 온다. 단단히 여민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산복에 등산화 질끈 동여맨 회원들과 그의 몇분을 모시고 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사전 답사를 통해 주요 지점에서 있는 수종과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 준비는 하였지만, 고참 배우라고 해도 매번 첫 무대에서 떨리는 것은 인간이기에 어쩔수 없는 일인가보다. 첫번째 지점인

아까시나무에서부터 출발했다. 아까시나무를 흔히 아까시아나무로 부르고 있는데 동요나 그의 노래 가사말에서 아까시아나무로 부르는 나무는 호주가 원산이고 1,000여종이 분포하며 키가 큰 교목(喬木), 키가 작은 관목(灌木)의 두 성상으로 나누어 지면서 호주의 주요한 용재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이다. 학문적인 이름은 Acacia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식재된 아까시나무는 아까시아나무와 유사하게 생겨 가짜 아까시아나무라는 학문적인 이름 Robinia pseudo-acaci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조선시대 말기에 연료림 및 산지복구용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 왔다는 설과, 일본을 통해서 들어 왔다는 설이 있으나 전자의 의견이 타당성이 높다. 잎은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꽃에서는 연간 800억원의 꿀을 생산하는 양봉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밀원자원이고 목재

는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답고 색상이 좋으며 물속에서도 잘 썩지않아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은 나무를 일본이 우리나라 소나무를 절멸시키기 위해서 들여와 식재하였다는 터미누 없는 유언비어가 시중에 나돌면서 매우 나쁜 나무로 오인되어 질시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이야기 할때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먼저 이야기 한다. 나무의 특성상 큰나무를 벌채 했을 때 뿌리에서 올라오는 맹아가 많이 나오게되는데 이것을 고사 시키는 약제나 처리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오류를 고치고 우리 조상들이 도입하여 활용 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등을 강조하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이 귀룽나무인데 주로 항생제역활을 하는 잎과 혈액순

환을 위한 사용방법 및 용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되고 리기다소나무, 국수나무를 지나 참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있는 너른공간에 올라서서 상수리나무 동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조상들의 애달픔이 보이는 듯 해 안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뒤를 돌아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때가 이 행사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사람은 소나무속에서 태어나 소나무속에서, 소나무를 이용해 생활하다가 양지바른 소나무 속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들 숙연해지기 까지한다. 아직 나이가 어린 경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열심히 받아적는 어린이를 볼때면 흐뭇해지기 까지한다.

국수를 뽑는 국수나무, 생강냄새가 나는 생강나무, 열매가 곧 식량인 밤나무, 목재의 결히고 속검은 다릅나무등 각 나무가 가지는 특성과 용도, 얽힌이야기를 할때 참가자들이 받아들이는

진지한 태도는 참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여 해설을 맡기를 잘했구나 가슴 뿌듯하게 생각된다. 아직은 홍보가 덜되어 참가자들이 적지만 점차 홍보가 되고 먼저 참석했던 분들이 구전으로 연결 되어 참가자들이 좀더 늘어 난다면 이 행사는 더욱 빛이 날것으로 본다.

참가자의 자세 및 발전방향

선진국에서는 보다 더 자연과 가까워지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식물공부를 하고 직접재배하며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교육이 산에오를 때 단순히 등산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라 생각하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예약, 행사에 참석해서는 해설자의 머리와 가슴을 개방하여 여러분 앞에 펴보일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같이 사전에 예약하고 직접 참여하며 좀더 적극적인 참

여자세가 필요 하리라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전가족이 참여하게 되면 부모님들도 배우게 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의 가슴에는 좀더 새롭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식물을 관찰하면서 보고, 느끼고 냄새맡고 배운 것 하나 하나를 노트할 수 있는 자세와 그렇게 하기위해서 관찰내용을 필기할 수 있는 노트와 관찰할 수 있는 확대경, 거기에 편안하면서도 느긋한 마음가짐까지 가진다면 더 좋은 야외자연교실, 더 많은 자연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식물들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매번 동일한 코스를 오르면서 느낀바는 많은 종류의 설명대상이 있는 다양한 코스가 개발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숲을 배우고 식물을 알아보면서 가슴은 날로 넓고 깊어져 갈것이다. ▲▲